외국인, 광주·전남 보유 땅

목포시 면적 73% 달해

〈3천503만8,000㎡〉

전남, 16개 시·도 중 경기 이어 두번째 규모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등 전국에서 외국인이 보유중인 토지규모와 땅값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법인 및 개인투자자들의 토지 매입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에 이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중인 광주·전남의 토지는 3천503만8천㎡,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2조6천24억원에 달한다. 이는 목포면적(4천792만㎡)의 73.1% 수준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말보다 토지 면적과 금액이 각각 2.1%(72만1천㎡), 0.7%(17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남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3천156만6천㎡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2.3%(70만3천㎡) 증가했다.

특히 전남의 외국의 소유 토지 면적은 전국(1억9천655만8천㎡)의 16.1% 수준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3천741만4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전남의 외국인 토지 비중이 높은 것은 여수와 광양 등을 중심으로 외국계법인의 토지 매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 소유자의 국적은 미국이 2천777만3천㎡로 전남 전체의 87.9%에 달했으며, ▲유럽 4.2%(132만4천㎡) ▲일본 2.9%(92만7천㎡) ▲중국 0.8%(26만1천㎡) 등의 순이었다. 소유자별로는 법인과 개인이 각각 78.5%(2천479만㎡), 21.5%(677만6천㎡)로, 법인의 토지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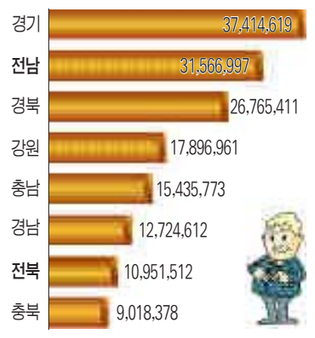
광주는 6월 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가 347만1천㎡로, 지난해에 비해 0.5%(1만7천㎡) 늘었다. 또 외국인 토지의 총 금액은 4천6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147억)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국은 올해 외국인 보유 토지가 분당신도시 면적의 9.9배인 1억9천656만㎡(25조1천31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면적과 금액이 각각 9.0%(1천625만㎡), 6.7%(1조5천861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증가율은 충남이 30.3%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21.1%) ▲인천(19.8%) ▲경기(18.5%) ▲충북(9.8%) ▲전북(4.9%) ▲서울(4.0%)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단위 : ㎡)



유명 와인 싼값에 맛보세요 광주신세계는 26일 백화점 지하1층 와인코너에서 '와인 벼룩 시장전'을 열고 샤또 오브리옹 등 '세컨드 브랜드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세컨드 브랜드 와인은 고가 와인과 같은 포도밭에서 같은 사람에 의해 생산돼 맛의 차이는 적은 반면 가격이 싼 것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하도급대금 합의서 강요땐 공정위 제재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은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86가지의 유형별 위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예시를 담았다. 공정위는 심사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행위의 예시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원자재 가격이 인상돼 단가인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오히려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관리지역 공장 설립 내년부터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관리지역내에 공장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연접 및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의 면적이 3만㎡를 넘을 때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기존 건축물과 연접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의 합이 3만㎡를 넘으면 모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이 까다롭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기원-美 BMR사 광주에 연구센터 설립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BMR 테크놀로지사와 차세대 장비개발 등을 위한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광주시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BMR사와 생기원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가 차세대 나노공정과 장비개발 등을 위한 연구센터 설립 조인식을 지난 24일 광주시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BMR사는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개발을 위한 증착장비(CVD) 개발 등을 위해 이 공동센터에 200만달러를 투자한다. /채희종기자 chae@

염생식물 '퉁퉁마디' 산업화

해양바이오硏-지역대학 미네랄 추출 신소재 개발키로

전남도해양바이오연구원이 국내 연안의 간척지 또는 휴·폐염전에서 자생하고 있는 염생식물인 '퉁퉁마디(일명 함초)'를 이용한 바이오산업화에 나선다.

연구원은 목포대·조선대·순천대 등 지역 대학은 물론 염업조합, 메디플랜 등 지역 7개 기업과 함께 2008~2012년 5개년 동안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퉁퉁마디의 기능적인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소금 수입개방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휴·폐염전을 퉁퉁마디 재배지로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최근 퉁퉁마디 재배방법에 대한 기술을 특허등록한데 이어 신안군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 30ha 폐염전에서 퉁퉁마디를 시험재배 중이다.

지난 97년 이후 휴·폐염전은 전국적으로 7천289ha가 발생했으며, 이중 전남지역은 2천548ha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 조영철 과장은 "퉁퉁마디에 함유된 미네랄·효소·색소소재 등을 추출 또는 분리정제해 바이오 신소재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퉁퉁마디=우리나라 서해안 개펄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모든 미량원소가 농축돼 있어 맛이 짜고 무겁다. 숙변과 변비를 없애고 비만증을 치료하며 고혈압·당뇨병·중이염·축농증 등에 두루 효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전남 민간소비 완만한 회복세

광주·전남지역의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형소매점 판매액, 자동차 등록대수, 비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심리(경제인식) 등의 민간소비 동향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소비를 가늠할 대표적 지표인 대형소매점(대형마트) 판매액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광주가 21.2%, 전남이 14.1% 각각 증가했다.

또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3.5% 늘었고 비제조업 업황 BSI도 작년 12월 67에서 올해 1월 74, 4월 78, 6월 83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소비자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생활형편 소비자동향조사지수(CSI)와 국내경기 CSI도 크게 개선돼 생활형편 CSI는 작년 4·4분기 85에서 올해 2·4분기에는 90으로, 국내경기 CSI는 73에서 92로 각각 향상됐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하반기에도 국내경제가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가계소득, 고용사정,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등 민간소비 관련여건이 모두 개선 또는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